

빨라진 2차 공공기관 이전...통합시에 '빅10' 배치를

9월 발표...농·수협·환경공단 등 핵심기관 유치 '총력'
대통령 "행정통합지역 집중"...지역민 기대 부응해야
정부 기조 걸맞은 성장 엔진·기업투자 등 전략 시급

정부가 추진 중인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이 9월 안에 확정될 것으로 알려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광주특별시)를 비롯한 전국의 광역자치단체들의 유치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2차 이전은 예초 발표 예정보다 한 달 가량 앞당겨진 일정으로 오는 7월 1일 출범하는 광주특별시의 첫 성과표로 직결될 것으로 보이는 데다, 이재명 대

통령이 행정통합을 먼저 추진한 광주특별시에 대한 혜택을 언급해 시민들의 관심이 여느때보다 뜨거워지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1일 전북도의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초안이 거의 마련된 상태"라며 "9월 안에는 전체적인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전 대상은 수도권에 소재한 350여 개

공공기관이다. 국토부는 2차 이전과 관련해 대상기관 선정과 이전 일정 등의 로드맵을 9월에 확정짓고, 이를 토대로 내년부터 본격적인 이전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현재 발주 중인 '2차 공공기관 이전 실행지원 용역'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또 2차 이전 공공기관의 경우 여건 개선, 지자체 협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이전 업무를 담당하는 혁신도시발전추진단 안에 혁신도시개발과와 혁신도시지원과를 신설하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6·3 지방선거가 마무리돼 새 지방정부가 출범하는 다음 달부터는 각 광역자치

단체들의 물밑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공기업 지방 이전은 지금 잘 준비하고 있다"며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이전하되, 저변처럼 분산시키면 집중 효과가 좀 떨어져서 이번에는 몰아보낼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가 균형발전 문제는 국가 생존이 걸린 문제라서 흠뻑리듯이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며 2차 이전은 지역별 안배보다는 거점 중심의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추진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2면으로
이성호 기자 solee235@gwangnam.co.kr

민형배 인수위, 시민의견 담는다

동·서·중남부권...타운홀미팅
19일 광주서 '창업도시' 주제
농민·여성·문화 분야별 소통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인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가 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시민과 직접 소통하는 권역·분야별 집중 타운홀미팅을 본격 추진한다.

대전환기획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민국 최초 통합특별시'는 시민의 참여와 공감 속에서 출범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시민 의견을 시장기획 과정에 직접 반영하기 위한 현장 중심 소통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타운홀미팅은 단순한 의견수렴을 넘어 시민이 통합특별시의 방향과 의제를 함께 만들어가는 장으로 추진된다.

시민추진위원회는 민형배 당선인과 함께 앞으로 2주간 권역별로는 동부권·서부권·중남부권 등을 중심으로 지역 현안을 들을 계획이다. 분야별로

는 창업, 농민, 여성, 문화 등 다양한 의제를 중심으로 시민과 직접 대화하는 자리를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타운홀미팅은 19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창업과 여성·노동·문화·서부·남부·동부권 등의 현안을 주제로 총 7차례 진행된다. 오는 19일 광주에서 열리는 첫 번째 주제는 '100대 창업도시 정책 타운홀 미팅'으로 정해졌다.

타운홀미팅은 19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창업과 여성·노동·문화·서부·남부·동부권 등의 현안을 주제로 총 7차례 진행된다. 오는 19일 광주에서 열리는 첫 번째 주제는 '100대 창업도시 정책 타운홀 미팅'으로 정해졌다.

타운홀미팅에서 민 당선인은 전남 광주시 발전을 위해 구상하고 있는 '인공지능(AI) 중심의 창업도시'에 대해 설명하고 관련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대전환기획위원회는 이번 타운홀미팅을 통해 제안된 의견들을 통합특별시 시장기획서와 핵심 전략과제에 반영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최초 통합특별시의 정책성과 미래 비전을 담아낼 새로운 상징체계 마련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성호 기자 photo25@gwangnam.co.kr



김민석 국무총리가 15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국토대전환 관련 광역단체장 당선자 간담회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위성곤 제주도지사 당선인, 김상욱 울산시장 당선인,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 김민석 국무총리, 허태정 대전시장 당선인,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인, 조상호 세종시장 당선인, 신용한 충북도지사 당선인,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 이원택 전북도지사 당선인. 뒀줄

"기업 지방투자에 파격 지원...정책펀드·공공금융 활용"

김민석 총리, 광역단체장 당선인 만나 협력 방안 논의
R&D 지원·스타트업 투자 확대...초광역 협력 사업 지원

김민석 국무총리는 15일 "5극3특 성장 엔진 육성을 위해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기업 투자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광역단체장 당선인들과 서울 총리공관에서 오찬 간담회를 갖고 국토공간 대전환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인, 허태정 대전시장 당선인, 김상욱 울산시장 당선인, 조상호 세종시장 당선인,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 신용한 충북도지사 당선인, 이원택 전북도지사 당선인, 위성

곤 제주도지사 당선인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이 자리했다.

김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대통령남께서 선거 직후에 긴 해외 순방을 나가셨다"며 "우선 제가 먼저 한번 모시고 정부에서 진행되는 것을 설명 드리고 나서 대통령께서 들어오시면 또 자리를 갖는 것이 좋겠다 싶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에서 지방선거 이후 하반기 과제 중에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국토공간 대전환"이라며 "이제부터는 관련

논의를 지방정부와 함께 시작해야 될 때인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는 "권역별 성장엔진 선정, 대규모 기업 투자 등 대형 프로젝트들이 본격적으로 보따리를 열고 구체화 될 것"이라며 "중앙정부가 사업을 배분한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수도권 중심의 국토 구조를 바꾸는 것을 중앙과 지방 정부가 함께 풀어나가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1면서 계속
이성호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알림 제14기 광남일보 드림리더 아카데미



한다혜 서울대 소비트렌드분석 연구위원
18일 오후 6시 브리브 광주 바이 롯데호텔

제14기 광남일보 드림리더 아카데미 강연이 6월 18일 (목) 오후 6시 광주 서구 브리브 광주 바이 롯데호텔 5층 대연회장서 열립니다.

이번 초청 강사는 한다혜 서울대 소비트렌드분석센터 연구위원으로 '소비트렌드로 바라보는 2026 대한민국'을 주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 연구위원은 소비자의 행동 변화와 사회 전반의 트렌드를 분석하고 급변하는 시대 속 개인과 기업이 준비해야 할 방향에 대한 통찰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초청강사 : 한다혜 서울대 소비트렌드분석센터 연구위원
△주 제 : '소비트렌드로 바라보는 2026 대한민국'
△일 시 : 2026년 6월 18일 (목) 오후 6시
△장 소 : 브리브 광주 바이 롯데호텔 대연회장 5층 (구, 라마다호텔)
△문 의 : 광남일보 글로벌리더 아카데미 사업국 (062-370-7090)

아카데미홀 임대

- 장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광남일보 사옥 1층)
- 스크린 및 음향 최고시설 완비
- 교육연수, 연회, 세미나 등
- 시설 사용인원(최대) : 150명

임대문의 : 062)370-7080

